

고척교회 예배 안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

◆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하절기)
	2부	오전 6:00	꿈터 채플(동절기)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3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30	5층 세미나실

◆ 교회학교 안내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1·2부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1·2부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1·2부 (초 1~3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지하
소년1·2부 (초 4~6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 상담실: 매주 (화) 오전 10시~오후 5시 Tel. 080-686-5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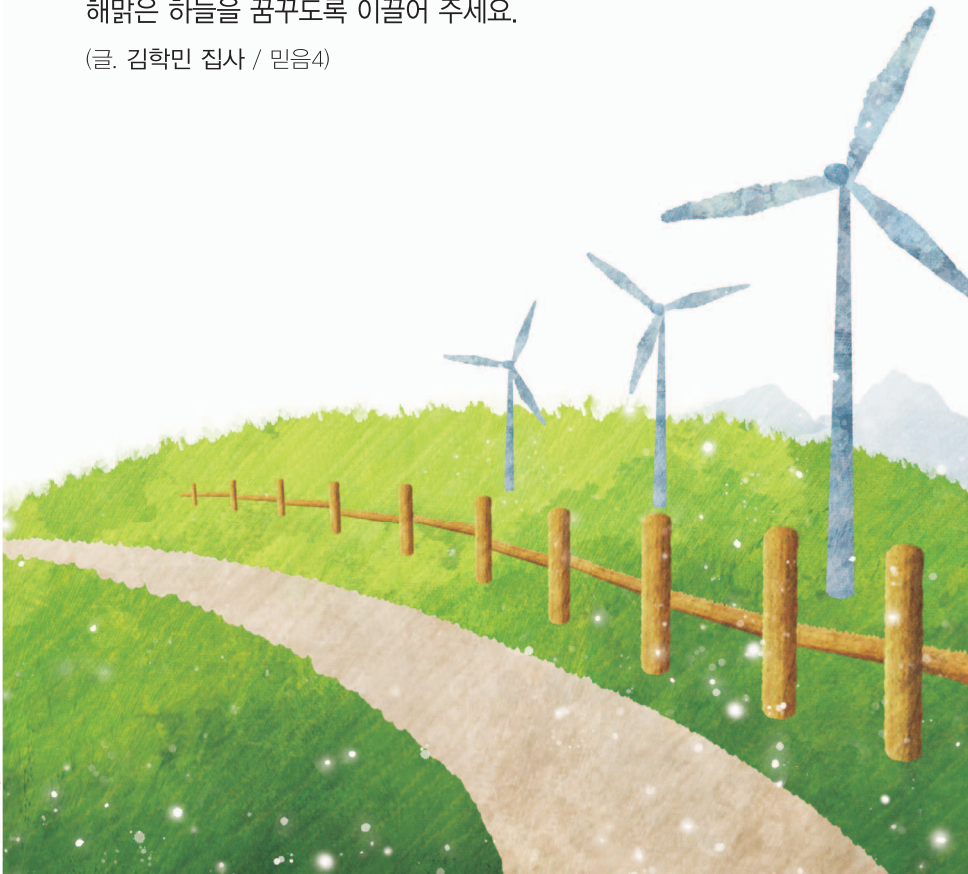


차동혁 담임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기도할게요.

동행인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따라갈게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솜사탕처럼
몽게몽게 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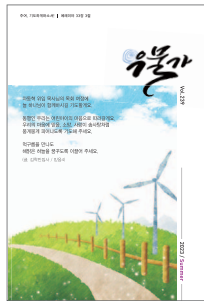
먹구름을 만나도
해맑은 하늘을 꿈꾸도록 이끌어 주세요.

(글. 김학민 집사 / 믿음4)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에레미야 33장 3절



우물가

2023 Summer Vol.239

1979년 4월 15일 창간 | 계간
제43권 제1호 통권 239호
2023년 7월 14일 발행
고척교회 역사홍보팀
<http://new.gocheok.or.kr>



발행인 | 차동혁 지도 | 유지운 부장 | 유제웅 팀장 | 이재만
편집위원 | 김숙희 · 이철현 · 김영남 · 이은경 · 이윤아 · 변숙영 · 임동선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창로 79 | Tel. 02.2686.5871~3 Fax. 02.2684.7677

마음을 전하세요~

고척교회 '우물가와 함께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 보세요.

To. _____

From. _____



CONTENTS

차례

- 002 담임목사 칼럼 잡초 사이 기도...
- 004 기획특집1 사진으로 보는 위임예식
- 008 기획특집2 하나님의 보석, 교인 교인들
- 016 우물가 Twitter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신의 언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
 내 삶 속 찬양
 “100일 기도통장”을 돌아보며
 가슴으로 쓰는 편지
 ■ 위임 목사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임 축하 메시지
- 032 책, 알고싶다 [그림책] 아빠를 빌려줘 | 한솔수북
- 034 여유 N 힐링 도심 속의 공원 | <청운 문학 도서관> 그리고 <더 숲 초소책방>
- 042 교육, 그거 쉬워요 고교학점제란?
- 046 우리 교회는? 각 부서 이야기



잡초 사이 기도...



차동혁 위임목사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전 9:22)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들과 담소하던 중, “잡초와 잔디는 무엇이 다를까?”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 모두 제대로 잔디를 키워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궁금하던 차에 “잡초”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지역 신문에 연재되었던 정원 가꾸기에 대한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칼럼 작가는 3천 평의 멋진 정원을 가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계획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 때문에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정원을 가꾸려던 것인데, 잡초로 인해 정원 가꾸기가 버거운 일이 된 것입니다. 작가는 너무 고통스러워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원에서 행복해지려면 잡초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잡초를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한 나는 이 정원에서 평화로울 수 없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멋진 정원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말자.’

이 생각 이후로 작가는 채소밭처럼 잡초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허용의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잡초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어깨를 짓누르던 부담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작가의 정원은 나무와 꽃, 잡초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정원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개성 있다며 좋아한다고도 합니다.

정원에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나듯이 삶에도 문제가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없애는 데만 몰두한다면, 고통과 스트레스가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삶의 문제를 너무 완벽하게 제거하려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내 문제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잡초를 제거하는 데 진을 다 뺀 것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잡초가 잘 자란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땅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땅이 척박하거나 부실하면 잡초도 잘 자라지 않는다. 삶의 문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이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기, 그리고 문제를 제거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삶을 누릴 것, 이것이 내가 정원 가꾸기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 못한 많은 잡초가 끊이지 않고 자라납니다. 때로는 이중삼중 겹겹이, 잡초 위에 잡초가 나오기도 합니다. 세대마다 잡초의 종류가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세대는 몸의 연약함이, 어떤 세대는 마음의 유약함이, 또 다른 세대는 관계의 엉킴이 잡초가 됩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두세 가지 종류의 잡초가 얹혀 올라옵니다.

인생의 잡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생각은 우리 인생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생각은 인생의 잡초가 나올 때마다 애달파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섭리를 믿고 조금은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허용의 마음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인생의 잡초로 경험하는 우리의 약함은 다른 이들의 약함을 돌아볼 줄 알게 하고 공감할 줄 알게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몸에 큰 질병을 발견하고 나서 과거에는 생각해볼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투병 중인 자신이 그런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약함과

아픔의 경험은 그와 같은 인생의 잡초로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잘 나가던 세상의 스펙을 모두 버리고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약한 몸으로 가장 힘든 복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평생 안질로 고생함은 물론이요, 억울한 욕도 많이 듣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잡초 같은 인생의 정원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니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과수원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다른 이들의 어떠한 약함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삶이었고, 자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지금, 우리 인생의 잡초가 우리 신앙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다른 이들의 약함을 공감해주어 서로를 위한 기도로 뜨거워지는 은혜 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뜨거운 기도가 무성한 잡초 사이에서도 기도의 이열치열로 무더위를 이겨내는 복음의 힘이 될 것입니다. ♣

차동혁 담임목사

[위 임 예 식]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1:12)

창립 69주년의 해에 지난 6월 18일
(주일) 오후 3시 차동혁 담임목사 위
임예식이 1대, 2대 원로목사님과 성도
님 들 그리고 타 교회의 많은 교우들
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로운 위임예식
을 드렸다.

이날 열린 1부 예배는 서울서남노회장
박대원 목사(신성교회)가 집례 했고,
기도는 부노회장인 원미동교회 김승
민 목사가 성경봉독은 동부시찰장인
조경훈 목사(서울명광교회)가 요한복
음 21:17을 봉독했다. 성경 봉독 후 연합찬양대가 “축복”으로 찬양을 하였고,
이철신 목사(영락교회 원로)가 “사랑과 목양”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2부 위임예식은 조규철 목사(노회서기, 베들레헴교회)가 위임목사 약력
소개 후, 차동혁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교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서약 하였
고, 교우들은 치리에 복종하고 위로와 협력하며 위임목사로 받기로 서약 하였다.



3부에서는 이해성 고성교회 원로목사가 권면을 고척교회 2대 원로목사인 조재호 목사의 축사에 이어 차동혁 목사가 감사의 말을 전했고 마지막으로 김제건 목사(고척교회 1대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비전을 품고 떠나는 야외예배

지난 3년의 시간동안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많은 교회행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여파로 많은 교회가 적지 않은 신도 수 감소로 현재까지도 주일예배의 빈자리가 여러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이후 우리교회 자치회와 여러 부서들은 야외예배와 친교모임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그 속에서 깊은 친교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교회생활을 하나씩 회복하고 있고, 이를 회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임과 동시에 축복이다.

이번 “기획특집2”는 상반기 중에 각 지교회나 부서가 회복을 넘어 각각의 부흥의 비전을 품고 떠나는 야외예배(모임)를 모아 보았다. [글. 이재만 편집팀장]

남선교회 연합회(회장 오봉희 장로)는 성령충만한 군선교 사역현장으로

4월 15일(토) 오전 6시 40분, 연합회원 60여명이 교회버스와 중형 용차 버스를 타고 약하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포천 산정호수 둘레길과 5사단 산하 미사일부대인 천마부대와 부대 내 햇불미암교회를 방문하여 예배 및 군선교비를 전달하였습니다. 점심은 장



병들과 부대 내 식당에서 진행됐고 돌아오는 길에 최전방 열쇠전망대를 관람하며 통일을 기원하였습니다.



상례팀 야외나들이는 예산과 당진에서...

교회 봉사부 소관 상례팀은 지난 4월 22일(토) 사업장 심방점 사역팀 봄나들이를 통해 더욱 친교를 다졌습니다. 처음 실시된 사업장 심방은 팀원 10명이 참석하여, 팀장인 김병곤 은퇴안수집사의 충남 예산 소재 LPG충전소 (주)예산에너지를 방문하여 함께 기도 후 사업현황과 약 9.900㎡ 사업장 견학을 마치고 당진으로 이동 설치 축제마을 입구에서 설치회 등 늦은 점심을 먹고 귀가 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야유회는 풍성한 은혜로 마무리

가브리엘 찬양대 야유회가 4월 22일 찬양대원 30여명이 예당호 저수지 출렁다리에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모두가 즐거움을 만끽하는 행복. 감사함으로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일동)



은장회(은퇴장로회) 국회·청와대 봄나들이

4월27일(목) 담임목사님을 포함하여 은퇴장로 회원 등 스무 명이 오랜만에 봄나들이 친교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분 좋은 봄날에 국회를 먼저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의 해설로 시작된 국회 본회의장 참관 후 본청 앞과 사랑재에 기념사진을 찍고 청와대로 이동하여 한창 봄단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 관저와 본관을 둘러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수집사회 3년만에 원주 소금산에서 성령의 감동이 듬뿍

올해부터 연합회에서 안수집사회로 모임이 시작되어 더욱 뜻 깊은 은혜의 친교 시간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42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총 3Km의 소금산 그랜드밸리 코스를 함께 완주하면서 도란도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 후 보물찾기와 색스폰 연주 등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해 주었던 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대부도 수목원 야외예배

매주 2부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감동의 선율로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지난 5월27일(토) 아침 비가 내리는 가운데 30여명의 대원들이 바다향기 수목원과 전곡항 등에서 실록의 자연을 누리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 뜨겁고 감동적인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찬양을 듣는 교우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들려주며 더욱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길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맑은샘중창단 동성교회 위임예식 축하

우리교회 1부예배 특별찬양을 담당했던 맑은샘중창단(반주 이경희집사)이 본 교회 출신 박중목 목사님(2012년 1월~2019년 4월까지 시무)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열렸던 강서구 소재 동성교회 초대로 위임축가를 불러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벗어나 처음으로 타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욱 귀한 중창단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병이어 인천 나들이

매주일 교인들의 점심교제를 담당하는 오병이어 식당봉사팀의 야유회가 지난 6월6일(화) 인천월미공원에서 30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한가운데 가쁨이 넘쳐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미도를 관광하며 리즈시절로 되돌아 갈 뻔 했던 향수에 젖어든 시간이었습니다. 식당봉사와 청소, 설거지까지 굳은 일도 마다하고 식당봉사에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그 손길들에 무한한 감사를 느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 한혜정 집사(소년부찬양대 지휘자 / 소망32)

안녕하세요 소년2부 찬양대와 워십팀을 지도하는 한혜정 집사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며 찬양대는 자리를 지킬 수 없었고 예배가 회복되어서도 여전히 찬양대는 찬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찬양을 해주셨고,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악기들로, 찬양가사에 맞춘 그림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모습으로 정성껏 찍은 영상을 각 가정에서 보내주셔서 찬양대의 빈자리를 대신 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새 학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리로 모두가 돌아왔을 때 찬양대와 함께하던 친구들은 중등부로 진급하고, 지도해주시던 선생님도 다른 사역을 위해 자리에 안 계시는 상황 속에 아무 경험도 없는 새 친구들로 과연 찬양대와 워십팀을 잘 이끌 수 있을지 많은 망설임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망설임과 고민이 무색하게 너무도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반주를 맡아줄 성실한 친구를 준비해주셨고 많은 친구들이 찬양대에 지원해서 찬양대석이 꽉 차게 채워주셨고 영상만 보고도 울동을 척척 외워오는 워십팀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찬양대가운이 답답하고 낯설었지만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친구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연습하고 부족한 몸치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이끌어주는 워십팀 친구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익숙하게 여기던 이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울동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중히 찬양대와 워십팀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의 언어”

| 문기형 안수집사(섬김17)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과학은 틀렸어 라고 과학(특히, 다른 과학 분야는 몰라도 진화에 있어서만큼은)을 부정하고 신앙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즉 교회에선 진화를 부정하고 학교가면 진화를 인정하고 했던, 중학교 시절의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이 내 나이 50이 넘어서도 멈추질 않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느낀다. 특히,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학창 시절 내내 물리 화학 생물학 천문학을 통해 배우게 된다. 수백 년에 걸쳐서 쌓여진 과학적 사실들은 이후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과거의 이론은 수정되거나 폐기되면서 다듬어져 간다. 물론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결국 신앙이라는 도약, 이성이라는 지지대를 뛰어넘는 점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점프를 하고 나면 과학을, 자연을 더 넓고 새로운 시야에서 보게 된다.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진화와 창조 과학의 갈림길에서 주저주저할 때 과학과 신앙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대화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이런 문제로 고민이 많다면 올 해가 가기 전 <신의 언어>라는 책. 시간을 내어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 이기재 안수집사(은혜8)

공기 좋은 남양주에서 생활하다 서울을 떠난지 24년만에 서울 고척동으로 다시 서울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의 고척동을 둘러보는데 비행기 소리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들리는줄 처음 알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서울 생활이 웬지 모르게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교회를 어느 곳으로 정해야 할지 선택의 고민도 있던 중 집 구경을 하던 밤 베란다에서 보이던 고척교회(그때는 우리 고척교회 인지는 몰랐습니다.) 집사가 침탑 조명이 환하게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내 집사(김정화)는 단번에 우리 저 교회 출석하자고 했고 이사오자마자 등록을 하였지만 저는 전에 다니던 교회 출석을 한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남양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따로 예배를 드리던 중 아내 집사가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기에 2021년 12월까지 남양주 교회를 다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금의 우리 좋은 교회 고척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만남과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내가 처음 아내 집사하고 교회 출석했던 만큼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보듬어 주는 우리 고척교회 공동체 식구가 있어 신앙 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라고 집 현관문에 지금도 맛난거 걸어주시는 권사님(성함은 안 올려도 되지요.) 커피, 케이크 상품권 보내주신 권사님, 교회 구석 구석 둘러보며 시설물 설명해 주신 장로님, 차량 봉사 하기위해 수레바퀴 사무실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준 지금의 주차봉사팀 이모양 저모양 많은 도움주신 고척교회 식구 공동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이사야 40:1).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고척교회 2023년 표어처럼 기도 나무 가꾸며 신앙 생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고맙고,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

| 고혜은 집사(리더 / 기쁨19)

저희 부부가 처음 C12라는 명칭의 부부소그룹에 들어왔을 때(기쁨교구 전), 리더부부가 해 주신 말씀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원들이 아무도 나오지 못하더라도 모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부부라도 모임을 갖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도 리더가 되면 이 자세를 본받아 모임의 자리를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했었고 코로나 시기에도 줌을 통해서 모임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닌 말씀과 나눔을 사모하기에 모이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부소그룹이다 보니 아이들의 육아와 부부관계 등 서로의 공통부분을 공유하며, 남편과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반면 가정에서 부부로 서운했던 점도 모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서운함이 풀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합니다.

늘 기도 제목에서 빠지지 않는 특히 남편집사님들의 기도제목인 ‘성령충만’은 기쁨19목장의 공통 기도 제목이며 구호가 되었습니다. ‘성령충만’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겨내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기쁨19목장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내 삶 속 찬양

| 김영진 (청년공동체/94도래)

요즘 하루의 가장 큰 낙은 출퇴근 길에 찬양을 듣는 일이다. 버스 창가에 앉아서 아무런 고민없이 찬양을 듣고 있어도 좋지만 그러던 와중에 찬양의 가사가 귀에 꽂히는 날은 괜히 하루종일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한 변화가 나 또한 있었다.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도 내 삶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나를 가장 크게 변화 시킨 것은 찬양이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었고, “예배합니다”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 “빛나는 왕의 왕”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하나되어”는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셨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곡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어떠한 때에는 위로의 말씀을 건내 주시며 어떠한 때에는 나의 삶을 되돌아 보게 하셨다.

나는 현재 청년공동체의 찬양팀인 주나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을 주나힘의 주제 말씀으로 맺으려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
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
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
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
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
라”(골로새서 3:16~17).



“100일 기도통장”을 돌아보며

| 김학렬 안수집사(새물결 팀장/소망32)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회복 플러스 신앙캠페인은 기도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00일 기도통장’을 활용해 매일 기도하며 영혼이 호흡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고척교회가 기도나무 가꾸기를 통해 성령 충만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통장에 적어주신 감사와 은혜의 기도 실천 소감들을 공유합니다. (※ 제출해주신 분이 많아 일부 소감 내용만 발췌해 게재하였습니다. 통장과 소감문 제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00일 기도 실천 소감문]

100일 기도를 실천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빈약한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 주님과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참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이 주시는 큰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심옥이 화평-31)

100일 기도 통장을 받고 기도로 하루하루를 채워 나간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의 시간을 갖고 통장에 꼼꼼히 적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00일 기도 통장 완성하게 하신 주님께 큰 영광 올립니다. (정옥희 섬김-1)

가족 기도, 교회 기도,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어 19가지 중요 목표를 프린트해서 가족이 함께 매일 읽고 기도했습니다. 가정예배와 기도예 함께 하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나눔과 응답에 감사, 세상 영적 전쟁, 환우, 몸의 병약함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힘 주소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박영란 소망-3)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걸 알았지만 100일 기도를 통해 더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니까 재밌었다. (박지은 유년부 3학년)

망망대해 한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 내 생각과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변숙영 은혜-10)

100일 기도 통장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하다 시간과 장소를 꼭 지켜 기도하기는 어려울 듯 싶어서 어린이집 출근하는 길목을 오가며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채움 공간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기도할 수 있음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양봉숙 소망-27)

처음에는 100일 동안 할 수 있을까 힘들겠지 했지만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위임목사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이상철 집사(6남선교회 회장/기쁨14)

목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교회에 위임목사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고척교회에서 13년째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기쁨14교구 이상철, 조윤정 집사 가정입니다.

13년 전 타향살이 시작하면서 교회 선택이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는데, 고척교회 덕분에 많은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고척교회에서 누린 은혜가 많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설렘보다는 익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척교회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타향살이 순조롭게 적응하고, 신앙생활도 깊이를 더해가며, 결혼일이조차 떴지 못했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어엿한 사춘기 소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전에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목사님과 만들어갈 더 큰 은혜의 추억들은 더 크겠죠? 모쪼록, 목사님께서 몸도 맘도 더 튼튼하여 지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저희 가정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목사님의 사역이 홀로 외롭지 않도록, 저희 가정도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주고,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결으신 그 길 따라서 걸으며 기꺼이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파이팅...



하나님과 대화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내 가족만 기도하다가 점점 나라와 교회, 친척을 위해 기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학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과 꿈을 통해 체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100일이었습니다. (김동례 사랑-8)

주님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행동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를 하지 못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집중한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통장에 입금을 하며 하루하루 채워가면서 주의 자녀임을 되새겼습니다. (김진옥 소망-17)

나는 무슨 일을 잘 잊어버린다. 기도통장을 쓰면서 기도하니까 그날 그날 감사한 것, 간구드릴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고 나중에도 그 기도 응답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도 많지만 항상 어떤 결과라도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주시는 것들도 너무 많았다. 중요한 것은 '나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드린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에 든든하고 감사하다. (김진경 소망-3)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안심할 수 있어요. (김은솔 유년부 3학년)

말씀 목상을 나누며 서로의 기도제목과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치료의 응답도 주시고, 합격의 응답도 주시고, 그 나눔을 통해 기쁨도 나누게 하셨다. 어려운 문제들 앞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새가족은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 신기하다는 간증도 하셨다. 기도 밖에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음을 깨닫는다. (윤경미 은혜-33)

매일 기도 생활은 하고 있지만 기도통장을 받아들고선 신기하게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영주 섬김-2)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습관을 세우게 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옥자 은혜-10)

때 상황에 맞는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감사 기도를 풍성히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체크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24시간 중 얼마나 시간을 내어 만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윤화 은혜-26)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절실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레루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주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미자 믿음-1)

기도통장 기록을 통하여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케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족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놀라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소망-3)

위임목사 축하 **고척교회** 칭찬 귀한종 축복 교인

창립69주년 **차동혁** 위로 **참된목자** 사랑 헌신

부흥 감사 총만 **도약 첫 사랑** 열매 은혜

기도 영광 **기쁨** 중보 **순종** 성장



손금숙 | 은퇴권사(은혜7)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훌륭한 차동혁목사님! 고척교회 위임목사님으로 오심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인들에게는 존중히 여감을 받는 귀한 종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신영 | 집사(18여전도회 회장/섬김23)

차동혁 목사님! 우리교회에 와주시고 위임해주셔서 감사해요 축하드리고 항상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 받았거든요~ 목사님의 지도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김명식 | 은퇴장로(믿음1)

창립 70년을 앞두고 위임목사의 중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어, 위로의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뵈고 싶지만 노쇠해서, 혹은 신병으로 출석 못하는 교인을 일주일에 한두 분 썩이라도 심방해 주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이미선 | 권사(은빛시니어학교 교감/은혜27)

위임을 축하드리며 목사님의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라 엄청 좋아요 목사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성도님들 많이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훈 | 장로(화평12)

차동혁 담임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리며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목사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차동혁 목사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특히 고척교회 위임목사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고척교회는 고척동이란 지명의 유래대로 '고차리' 즉 높은 곳에 생긴 마을이며, 또한 높은 척도의 고상한 교회입니다. 69년의 고척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존경받던 김제건 목사님이 33년을, 덕망 높은 조재호목사님이 32년을 장기목회하신 교회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3대째 목사님으로 위임받게 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차동혁 목사님을 목자로 위임하게 된 고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차동혁 목사님은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동력을 가지신 분이어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 가실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차 목사님과 고척의 성도님들이여! 위임예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30여년의 세월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들어내며 서로 행복한 신앙생활과 목회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교우들에게 선한목자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서로가 함께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경험한 고척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뢰아 교회와 같이 갈수록 더욱더 '유계네스' 즉 너그럽고 신사적이며 고상한 고척교회가 되어 질 것을 믿어 미리 '가뭇축사'를 드립니다.

차동혁 목사님과 고척교회 성도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남교회 신태의 목사 드림



총각심방전도사는 불허한다 하시어 갑자기 결혼하고 부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척동에서 첫말을 주셨고, 광남교회 개척하던 해 아들을 주셨는데 지금은 세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척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아 개척된 광남교회입니다.(신태의 목사님은 1982년 2월 전도사로 부임하시어, 1985년 4월까지 부목사로 시무하셨습니다.)

최동현 | 원로장로(소망3)

차동혁목사님. 고척교회의 위임목사로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두분 원로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의 원로목사님이 되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고척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시는 진실한 목회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수홍 | 안수집사(안수집사회 회장/소망 남성1)

행복한 교회 고척교회, 행복한 목회를 꿈꾸는 차동혁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김학민 | 집사(믿음4)

목회의 여정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기도할게요. 동행인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따라갈게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솜사탕처럼 뭉게뭉게 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먹구름을 만나도 해맑은 하늘을 꿈꾸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우철 | 안수집사(임마누엘찬양대 대장/화평3)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척교회에서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차동혁 위임목사님! 축복합니다!!

배순길 | 은퇴장로(은퇴장로회 회장)

샬롬!! 高尺敎會 創立 七十週年 앞에서 第3代 委任받는 차동혁 牧師님에게 하나님의 恩寵이 充滿 하시길 바라며 敎會에는 기쁨의榮光과 幸福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119편165절)

김완기 | 안수집사(M12운영팀장/섬김31)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부흥되기를 소망하며 위임목사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미라 | 집사(2부예배 관현악 베데스다 단장/소망 25)

목사님~ 위임목사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고척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주시고 있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가정에 가득하며 평안하시길 항상 기도 하겠습니다.

김형욱 | 권사(제3권사회 회장/사랑13)

목사님과 함께 크게 도약할 우리 고척교회가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비전을 보이시고 그 비전에 함께 연합되어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정순 | 권사(5여전도회 회장)

님, 맛있는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메이듯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흡족한 은혜의 단비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언제나 은혜와 사랑이 충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영일 | 은퇴안수집사(1남선교회 회장/소망5)

첫사랑, 첫 열매가 소중함 같이 사랑하는 목사님! 끝까지 아름다운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고척교회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강경자 | 권사(은혜25)

위임목사님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미옥 | 권사(7여전도회 회장/소망31)

차동혁 목사님의 귀한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목회 사역 위해서 기도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위임 축복 하며 감사드립니다.

고원호 | 장로(기쁨1)

먼저 고척교회의 위임목사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교인들이 차동혁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충식 | 안수집사(5남선교회 회장/은혜31)

차동혁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척교회 에 부흥의 불길아 뜨겁게 살아나고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문연옥 | 권사(6여전도회 회장/은혜4)

목사님! 3대 위임목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선한 목자가 되시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소외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살피시는 주의 종 되시고, 목사님을 통해 더욱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식 | 은퇴장로(믿음33)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복되고 행복한교회로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되도록 인도해주시기 소망하며 교우들과 함께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봉희 | 장로(남선교회연합회 회장/소망7)

귀한 차동혁목사님 고척교회로 보내주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교회 고척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교회 고척교회 기대합니다.

박수대 | 안수집사(화평31)

차동혁 위임목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선한목자 좋은 목자 되어 주세요.

김영란 | 집사(은혜9)

축복 가득한 날 위임목사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강건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시고, 늘 교인들의 말을 경청 해 주시고 동행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어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희순 | 권사(11여전도회 회장/화평19)

차동혁목사님! 위임목사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영적 카리스마로 영을 살리는 권능 있는 목사님이 되셔서 사사기 시대의 웃니엘,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명희 | 집사(은혜11)

목사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는 없다 해도,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레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정정자 | 권사(1여전도회 회장/은혜14)

여호와이레! 하나님의 축복 통로로 위임되신 차동혁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윗왕의 품성과 솔로몬의 지혜와 겸손을 마음 가득 담으셔서 아름다운 고척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품고 계신 비전을 이루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김순영 | 권사(제1권사회 회장/소망16)

위임 받으시는 차동혁 목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중, 양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미동 | 권사(10여전도회 회장/섬김7)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차동혁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고척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실 목사님!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정애희 | 권사(고척어린이집 원장/사랑39)

차동혁 위임목사님! 기도하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행복한 목양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주성 | 안수집사(임마누엘 찬양대/소망14)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강건 하시고 계획하신 목회 사역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윤석권 | 원로장로(사랑2)

69년전 창립된 고척교회가 2대원로 목사님을 이어받아 제3대 위임목사로 차동혁 목사님을 모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을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구원의 방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세세토록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정원연 | 명예권사(2여전도회 회장/소망34)

할렐루야! 고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임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소서 목사님께 더욱 새로운 힘을 주시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임창복 | 은퇴장로(은혜1)

고척공동체의 그리스도 대사로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지경이 넓혀지며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멋진 영적지도자로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 합니다.

김영찬 | 이명안수집사(사랑5)

차동혁 담임목사님의 위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우리 고척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미옥 | 집사(16여전도 회장/ 화평13)

영적 리더십으로 말씀으로 전적인 세대를 돌보고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소위된 이웃을 위해 복음의 빛을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목사님의 사역길이 되도록 항상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임을 축복합니다 !!!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양봉숙 | 은퇴권사(소망34)

차동혁 목사님의 위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편에 계심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편에 서 있기를 바라라"

안송근 | 권사(할렐루야찬양대 대장/사랑7)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차동혁 목사님 위임식을 앞두고 제직회 때 가슴 뭉클 했던 감동과 함께 마른 떡 하나로도 화목한 고척교회 위임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김숙현 | 협동장로(사랑 남성)

69년전 「눈물로 씨를 뿌린 고척 제단」 차동혁 위임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늘 영광”의 뜻을 향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날까지 기도 합니다.

유승천 | 안수집사(사무장/소망14)

목사님의 위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힘내시고 언제나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혜은 | 집사(사무행정/소망14)

목사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고척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김정윤 | 은퇴장로(섬김6)

차동혁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리며, 고척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으로 교회에는 부흥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김규업 | 장로 (교육위원회 부장/믿음21)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심 가운데 고척교회 3대 위임목사님으로 세워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척공동체 위에 모든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윤정숙 | 권사(데이케어센터 센터장/기쁨1)

목사님의 위임을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목회를 향해 품으신 큰 뜻을 활짝 펴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변화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고척교회가 되길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춘희 | 권사(믿음7)

목사님 위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푸른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잔한 미소로 성도들을 반기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지금처럼 늘 행복하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상원 | 안수집사(중등부 부장/소망26)

차분한 목소리에 온화한 얼굴. 동분서주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목자. 혁신을 바라지 않아요 단지 그 따뜻함으로 저희의 꼴을 채워 주세요. 목사님의 위임이 고척교회의 축복인걸요~♡♡

이경희 | 집사(3부예배 오르간반주/소망61)

차동혁 목사님!! 위임목사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초심을 잊지 않으시며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목사님이 되시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우영 | 은퇴장로(사랑28)

위임목사님을 축복하사 성령충만한 선한 목자로 삼아주셔서 돌보는 양들이 주의 동산에서 기름진 꼴을 통하여 영육간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요 서로 사랑하며 감사가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 참 좋은 고척교회의 능력의 종으로 덧입혀 주시옵길 축원드립니다.

따뜻한 마음과 느낌은 전 세계 모두 통한다

| 고척교회 책마을 지기(글 : 장소영 집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그림책은 얼마 전 4월에 고척교회도서관 책마을에서 원화전시회를 열었던 허정윤 작가의 <아빠를 빌려줘> 그림책입니다.

저는 그림책을 볼 때 먼저 표지의 그림과 제목을 보고 무슨 내용일까 생각해 보거든요. ‘아빠를 빌린다’는 제목이 슬프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일까 두근두근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매가 상복을 입고 서있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어떤 부분은 이해도 가고 어떤 부분은 화도 나고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어요.

여름인데도 아빠와 함께 한 추억이 있는 겨울바지를 입는 남동생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누나의 모습이 안타까워요.

아빠와 함께 야구하며 즐거웠던 남동생은 “아빠와 야구하고싶어”라고 얘기하지만 아빠의 커다란 빈자리만 확인하게 돼요. 누나도 아빠가 그림기는 마친가 지예요.

동생은 누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때를 부리고...

누군가를 잃고 헛헛한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모두 이런 마음 아픈 상황이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 이겨낸 경험이 있기에 더더욱 공감가는 그림책이에요.

동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고민 끝에 선택하는 일!!

궁금하시죠??

고척교회 도서관 책마을에 따뜻한 이 그림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 해 보세요.

마침 고척교회 도서관 책마을에서 문화행사로 원화전시(4/9~4/21)를 열어주셔서 저희 <그림책 읽는 엄마들의 모임>에서 원화를 보며 다시 한번 뭉클한 감동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림책 읽는 엄마 모임

[그림책] 아빠를 빌려줘 | 한솔수북 / 2022





도심 속의 공원이 주는 여유 N Healing

인왕산 자락 길 따라 거닐며 만나는 문화 공간

〈청운 문학 도서관〉
그리고 〈더 숲 초소책방〉

| 글·사진 이은경 집사(사랑 39, 편집위원)



서울은 경복궁을 기준으로 좌우로
서촌과 북촌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서촌을 둘러싸고 있는 인왕산 자락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문화 공간이자 힐링 스팟 두 곳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시청역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십여 분을 달리다가 자하문 터널 입구에서 하차하면 청운동이라는 고즈넉한 동네를 만날 수 있다.

청운동 빌라 촌을 따라 조금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보면 그 길 끝자락에서 길모퉁이를 돌아마자 갑자기 나타나는 한옥 건물이 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청운 문학 도서관〉이 바로 그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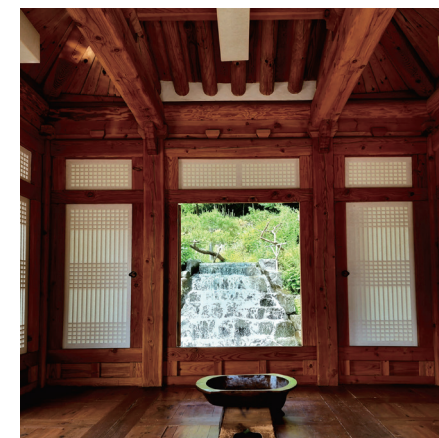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 한옥 건물에 아름다운 곡선의 기와, 그리고 자그마한 정자와 작지만 시원한 폭포가 있는 아주 멋진 한옥 건축물이다. 유명한 검색 포털에 따르면 승례문 복원에 사용된 지붕 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를 사용하고,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 기와 3천여 장을 재사용한 의미 있는 건축물이라고 알려진 곳이다.

1층에서 도서를 대여하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고즈넉한 한옥 건물의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숲속 한가운데서 숲이 들려주는 소리, 새소리 그리고 폭포 소리를 들으며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곳은 숲속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한옥 건물에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매력적인 공간이다.

〈청운 문학 도서관〉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감탄하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서 도서관 건물 옆으로 난 나무계단을 올라가면 〈인왕산 자락길〉을 만날 수 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10분 정도 걷다보면 길가에 바로 〈더 숲 초소책방〉이라는 간판이 있는 현대적인 유리건물과 루프탑에 놓인 흰색 파라솔이 깔끔하게 어우러진 북 카페를 만날 수 있다.

이 카페는 인왕산 중턱에 청와대 방호 목적으로 건축되어 50년 넘게 경찰 초소로 이용되어 온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라 〈초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인왕산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2차선 도로인데 카페가 그 도로가에 있어서 등산객 뿐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이





카페를 찾는 방문객이 많아 평일이든 주말이든 주차장은 늘 만차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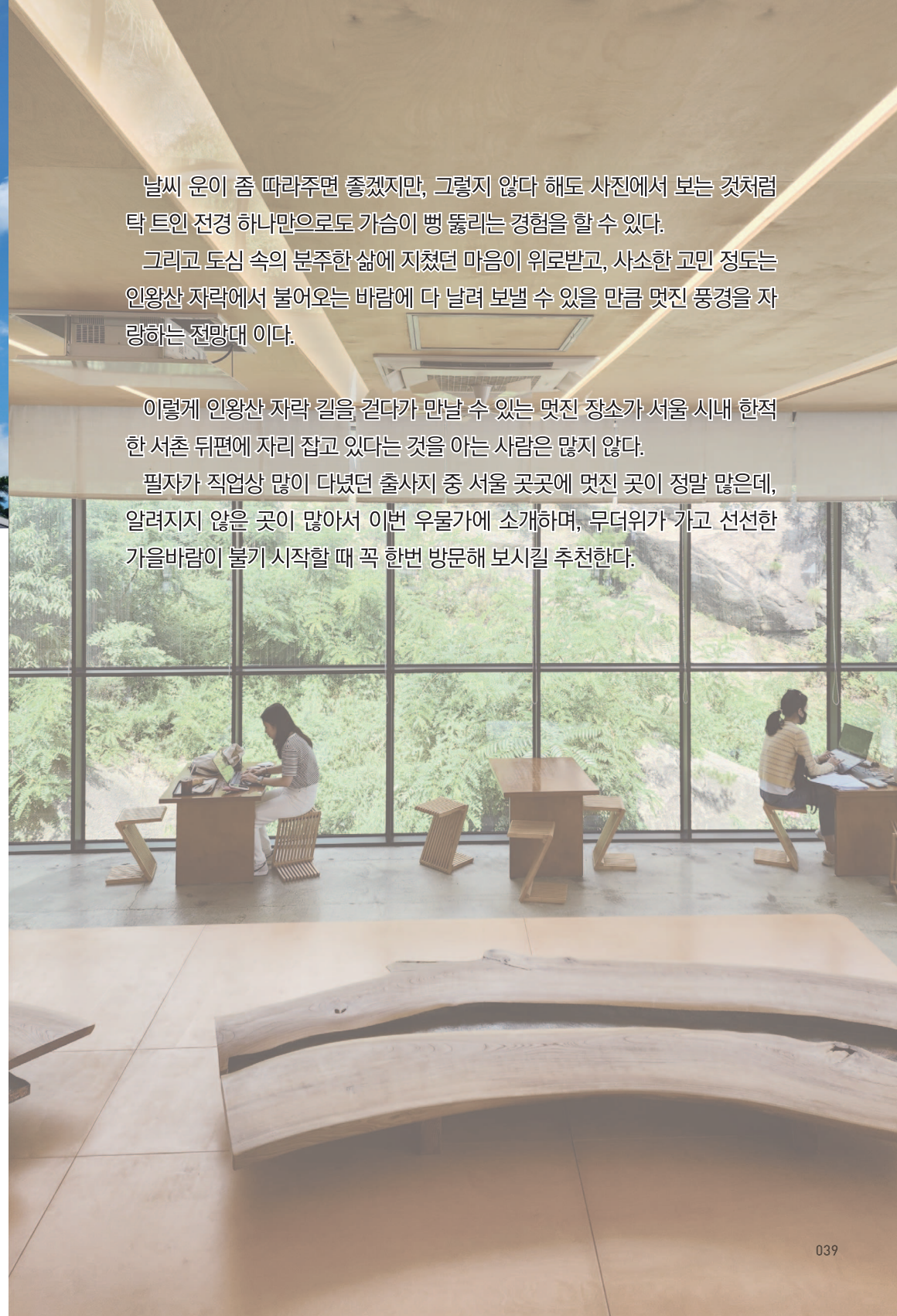
인왕산 <초소책방>은 읽을거리, 먹거리 뿐만 아니라 서촌(세종마을)을 중심으로 경복궁과 청와대 그리고 남산 N서울 타워가 너무나 잘 내려다보이고, 날씨가 좋고 맑은 날엔 멀리 잠실타워까지도 또렷하게 보이는 시원한 도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경치 좋은 루프탑에 마련된 야외 파라솔이 있는 자리에 앉아 멋진 뷰와 향긋한 커피, 그리고 맘에 드는 책 한권과 함께 진정 도심 속 자연이 주는 여유와 힐링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반면 점심시간 직후 방문하면 앉을 자리 전혀 없이 꽉 들어찬 방문객에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한다.

그러나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카페를 뒤로 한 채 오던 길을 따라 계속 걷다보면 채 5분도 가지 않아 멋진 전망대를 만날 수 있다.

그 전망대에 붙여진 이름은 <인왕산 무무대 전망대>이다.

날씨 좋고 공기가 맑은 날 만날 수 있는 경치와 도심 풍경은 정말 외국 어느 나라의 멋진 풍경 부럽지 않고, 나만의 인생사진까지 남길 수 있다.



날씨 운이 좀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탁 트인 전경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 속의 분주한 삶에 지쳤던 마음이 위로받고, 사소한 고민 정도는 인왕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다 날려 보낼 수 있을 만큼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전망대 이다.

이렇게 인왕산 자락 길을 걸다가 만날 수 있는 멋진 장소가 서울 시내 한적한 서촌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필자가 직업상 많이 다녔던 출사지 중 서울 곳곳에 멋진 곳이 정말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이번 우물가에 소개하며, 무더위가 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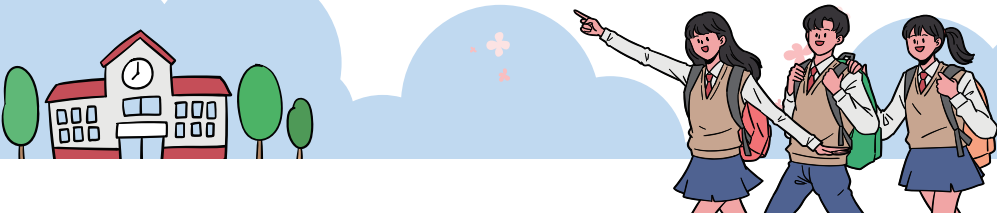


〈청운 문학 도서관〉과 〈더 숲 초소 책방〉과 그리고 〈인왕산 무무대 전망대〉까지 모두 둘러보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권하고, 인터넷 길 찾기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가 수 있는데, 필자는 여러 번 방문해 본 결과 1호선 시청역 부근 프레스 센터 앞에서 버스를 타고 청운동에서 내려 약간의 오르막길만 오르면, 소개한 세 곳의 명소를 쉽게 방문하고 여유로운 산책과 힐링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올 가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꼭한 번 인왕산 자락 길을 따라 걸으며, 행복한 도심 속의 여유시간을 가져보시길...

고교학점제란?

| 강용국 집사(원하는대학합격입시전문가/화평23)



고교 학점제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 망하니까 만든 거예요.

OECD 선진국들이 다 인구 감소가 돼서 선진국들이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성장률이 떨어져 버려요. 20년 전에 OECD 선진국들이 모였습니다.

20년 전에 뭘 했느냐 100만 명이 아니라 애들이 10만 명이 태어났더라도 그 10만 명 다 자기 진로를 찾아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이 될까 하고 연구해서 만든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변화1. 달라지는 과목과 평가

과목은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으로 분류됩니다.

공통과목은 똑같이 전교생이 배우는 거고 선택과목은 진로에 따른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공통과목은 30%, 나머지 70%인 선택과목은 아이들이 직접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과목이 9등급제에서 성취평가제로 바뀝니다.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전체 아이들의 4%였는데 성취평가제에서는 100점인 학생이 여러 명 나와도 상관이 없게 되요.



변화2. 진로에 따른 아이마다 다른 과목 선택해야 합니다.

인문계열 ○○학과, 상경계열 ○○학과, 간호계열 ○○학과, 공학계열 ○○학과 등등 교육부에서 선택과목을 지정했고 대학교 입시에서는 선택과목 가산점을 줍니다.

변화3. 고교학점제 과목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은 사라지고 화법과 언어가 생깁니다.

문학과 영상, 인공지능 수학, 영미문학 읽기 등이 생깁니다.

선행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교과서가 없다 어디서 배우실 거예요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다음 편 아니면 다다음 편에서 고교학점제 교과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변화4. 개인관리의 중요성

나만의 시간표를 짜야합니다. 시간표를 짜 주고 관리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학원이 생겨날 겁니다. 반과 담임이 사라집니다. 아이가 신청한 과목에 따라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기 때문에 담임은 진로 관리교사로 바뀝니다. 담임의 과목을 신청하지 않으면 얼굴을 볼일이 없겠지요.

우리아이 잘하고 있냐요 하면 담임은 인사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이 공부 관리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새로운 학원이 생길 겁니다.

공통교육과정과 소인수교육과정이 생깁니다.

타 학교 학생들과 온, 오프라인 수업, 10명 미만의 소인수교육과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는 일본어가 없으면 일본어가 있는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던지 온라인으로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특정 과목들을 가르치는 특목고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특목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목자사고 전문 학원은 몇 년 후에 사라질 겁니다.

변화5. 달라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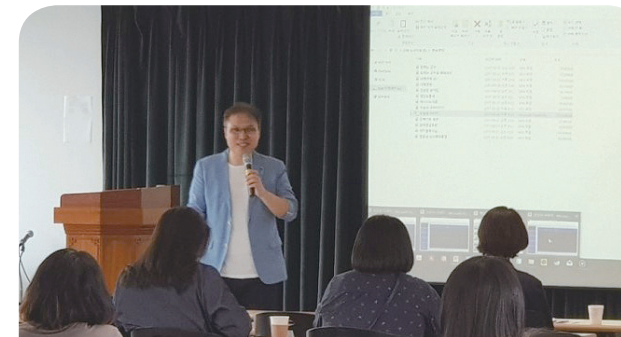
공교육에서 발표한 내용은

초등학교 3~6학년에 진로 선택하는 과정을 60시간 범위에서 연습을 시킵니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진로 탐색, 설계에 집중하는 진로 연계학기제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가 진행 됩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학기제가 진행 됩니다. 결론, 교육은 진로로 바뀝니다.



여가 시간 활용

서울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

| 김명식 은퇴장로(꿈샘문화교실 강사 / 믿음 1)

일반적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평생교육이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일찍이 평생교육사(이난실 권사)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 방면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꿈샘문화교실이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란다.

‘서울문화탐방’ 강좌는 2시간 정도 걸으면서 서울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역사, 문학, 음악, 미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강좌이다. 한 학기에 4번씩, 일년에 16번을 진행한다. 주요 탐방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봄학기: 정동 역사길(덕수궁 포함) / 낙산 성곽길 / 남산 둘레길
신촌과 안산 둘레길
2. 여름학기: 서촌 / 창덕궁에서 대학로 / 백사실 계곡 / 인천 월미공원
3. 가을학기: 성북동 / 수원 서호공원 / 북촌 / 종로서북부
4. 겨울학기: 수원화성 / 서대문 역사공원 / 방학동 / 인천 차이나타운

우리가 사는 서울과 인천, 수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며, 문화와 역사에 대한 안목도 높일 수 있는 고품격강좌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이웃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신촌 탐방 코스: 홍제천폭포 앞에서



정동길 탐방중: 덕수궁 안에서

22차 해피데이

| 김재광 목사(고등부)

5월 14일 주일 오랜만에 교회 마당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 아이들과 어른들로 마당이 꽉 찼고 계속해서 즐거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다. 고척교회의 대표 행사인 '22차 해피데이'가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부서별로 진행했다가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교회 마당 축제로 준비해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 여전도회의 도움으로 먹거리도 8가지나 준비를 했고 이전에는 없었던 각종 체험존을 만들어 운영했다. 비전센터 2층에서는 6가지의 가족 놀이존을 운영했고 병뚜껑을 날리기, 링던지기, 다트, 금액 맞추기 등 최고 기록을 달성한 가족에게 선물도 주어졌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도 설치해서 마음껏 뛰어 놀게 했고 마당에서는 가스펠 체험, 과학 실험 체험, 부서별 체험 행사도 진행되었다.

해피데이 최고의 인기는 바이킹이었다. 바이킹에 올라타 "좀더 썰게요"를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바이킹은 점점 높이 올라갔다. 바이킹 타는 아이들도 즐겁고 바라보는 모든 이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한쪽에서는 가족 사진 촬영

과 페이스 페인팅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함께 진행되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해피데이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와 함께 다니며 참여 했고 친구들과도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누구나 안내존에서 쿠폰을 구입해서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도 있었다. 말 그대로 '해피'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 모든 행사를 위해 섬기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피데이를 통해서 기뻐하셨을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 자녀 된 우리가 함께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오랜만에 교회 마당을 밟으며 참여한 아이들, 엄마 아빠 손잡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을 것이다.



바라기는 잠깐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 나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시간이었고, 고척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치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고척교회의 마당 행사로서 친구도 초청하는 전도의 큰 잔치로 이어지길 소망해본다.



말씀으로 쑥쑥

옹알이 아기도 부모와 함께 기도해요!

장은주 목사(영아부)



우리 교회 영아부는 3세 이하의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예배하며 신앙을 키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이지만 모든 어린이를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어린이 영성(Children Spirituality)'의 이론에 따라 인지적인 설명이나 논리보다는 다감각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매주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렘 33:3)라는 고척교회의 대주제 아래 영아부 아기와 부모, 교사들이 함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 후에는 교사중보기도회를, 사순절에는 특별 텐텐기도회를, 가정에서는 매일 밤 “쿨쿨아멘!” 기도책을 통해 아이들이 기도를 들으며 잠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등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하여 매주 한가 지씩 배우고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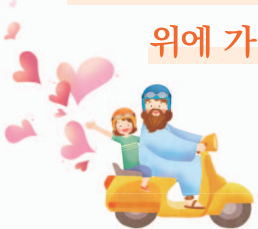
| 한국교회 전도사(유아부)

2023년에는 모든 유아부 친구들을 대면 예배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아부실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아부의 교육표어는 “예수님의 어린이, 기도해요!”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던 친구들이 2월과 3월을 지나며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져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말씀암송발표회’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대에 나와서 부모가 말씀송을 부르면 그 음울에 맞춰 아기가 몸을 흔들며 참여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처럼 영아와 부모가 함께 성경말씀을 배우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영아부 모든 가정 위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울었는데 이제는 씩씩하게 예배실로 들어오는 아이, 선생님의 따뜻한 품에서 잠드는 아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이, 선생님이 보고 싶다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유아부에 잘 적응해가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쁘게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짓게 됩니다.

유아부는 매달 '자녀축복기도문'과 '단원암송영상', 매주 'CBS 성경동화'를 가정으로 전달합니다. 매일 성경을 암송하

고, 성경동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자녀축복기도문으로 아이에게 기도해줌으로써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예배가 드러지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모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이들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한주 한주가 기뻐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랑스런 자녀로 성장하도록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유아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앗 심기와 싹트기'

김바람 목사(유치부)

2023년 유치부의 1월은 매서운 추위로 시작했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 아이들의 마음 발이 고르게 되기를 바라며,
모두의 마음 발에 믿음의 씨앗이 잘 심기도록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2월에는 봄 성경학교를 통해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 아이는 이렇게 기도해요'라는 주제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물을 주고 성령님께서 기도의 싹을 틔우시도록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소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쓰며, 교사들은 마가복음 말씀 묵상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으며 십자가를 향한 소망의 씨앗을 심으며 나아갔습니다. 말씀 쓰기를 통해 유치부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더 가까이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4월은 부활절과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며 기쁨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유치부 어린이들 모두와 가정에 함께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5월은 기쁨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해피데이를 통해 여러 해 동안 간절히 바랐던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하며 환하게 웃으며 고척 마당에서 신나게 한바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고척교회 어린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가정마다 함께 임하는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농부가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것을 기다리듯이 유치부에서 매주 함께 하는 시간이 어린이들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씨앗이 심기어 싹이 트는 것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시간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치부 어린 영혼의 마음 밭에 심을
여전히 많은 씨앗을 보며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 강아삭 전도사(소년부)

4월 29일 토요일 우리 고척교회에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노회에서 주최하는 아동부 어린이대회가 열렸습니다. 2년 동안의 공백기를 마치고 어린이대회가 개최되어 참 기쁜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동안 어린이대회의 명맥이 끊어, 아이들이 성경 암송, 찬양 합창, 등의 어린이대회 종목에 출전하는 걸 낯설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만약 아무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할지 등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어린이대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예상과 달리 많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각자 지원한 종목에 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어린이대회를 준비하

는 데 많은 수고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열정과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대회에서 참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등등. 상도 참 다양하게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어린이대회

에서 노력에 알맞은 보상을 받고,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어 참 기뻐했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이후의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위생에 민감한 초등학생과 부모님들이 앞으로의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할 수 있을지, 이로 인해 그들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등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어린이대회로 저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으며, 오히려 앞으로도 교회 사역을 더욱더 힘차게 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대회와 같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교회의 다양한 행사들이 잘 개최되고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많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중등부!

| 박동운 전도사(중등부)



1. 졸업여행

6월 3일 중등부 3학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인천대공원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졸업하기에는 몇 달에 시간이 남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조금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시간과 옛 감성에 보물찾기 그리고 마지막은 무한리필 고깃집을 방문하여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한 교제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성장한 중3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2. 강남협의회 찬양경연대회 참가

중등부에는 워십팀 '히릿'이 있습니다. 히릿팀은 치유하는 교회에서 진행된 '강남협의회 청소년 찬양경연대회'에 워 십으로 나가게 되었고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I'm Still Here' 곡에 형선선생님과 주연선생님께서 직접 창작하신 워 십으로 히릿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원으로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히릿 친구들과 열정을 다해 헌신하신 두 분의 선생님께서 기쁨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3. 중등부 목마사

중등부에는 심방 프로젝트 시즌2 '목마사'가 있습니다. 목마사는 '목사님 마라탕 사주세요!'에 줄임말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등부 친구들을 만나 마라탕을 사주며 교제하는 심방 프로젝트입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큰 위로와 기쁨이 되며 믿음 잃지 않는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소식

| 이윤아 (청년공동체 92포대 / 편집위원)

1. 2월 24일 ~ 2월 25일 - 2023 청년공동체 스프링 신앙수련회

2023년에 들어서며 청년공동체에서 첫 번째 가장 큰 행사로 스프링 신앙수련회가 진행되었다.

‘기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빌립보서 1:8~11)이라는 주제 아래 이틀에 걸쳐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차동혁 담임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집회의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각자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수련회 첫째 날이었다.

수련회 둘째 날은 영성기도학교를 진행했으며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번 수련회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서 진행되는 수련회



였다는 점이다. 우리 청년들 모두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리고 스프링 신앙수련회를 통해 고척교회 청년공동체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2. 5월 28일 - 청년공동체 헌신예배

매년 5월 마지막 주는 청년주일이다. 청년의 때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서로 믿음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고척 청년공동체는 올해 ‘기도로 사랑의 집을 만들라’(이사야 56:6~8)는 주제로 2023년을 달려가고 있다.

청년공동체 헌신예배에는 많은 순서들이 진행되었다. DOD 워십댄스팀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비롯해

올해 20살이 된 새내기들의 성년축복식이 진행되었다. 많은 고척의 청년들이 참여해 이들이 성년이 됨을 축하해 주었다.

특별히 이번 청년헌신예배 때는 참석한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귀한 시간 또한 진행되었다.

몸 된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고척 청년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고척의 많은 성도님들께 고척 청년공동체의 기둥 같은 리더십들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다.

